

지희선

봄비 오는 밤

1

생각도 봄을 타나
봄비 오는 밤이면

연초록 기억들이
풀꽃으로 돌아나고

뽀얀 순이 얼굴이
감꽃으로 피는 밤

2

사방 무늬 천장 보며
잠 못 들던 그 밤도

개구리 울음 속에
봄비가 지분뎠다



1995년 『문학세계』 수필 신인상. 1997년 『수필과 비평』 수필 신인상.
1999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 수필 당선. 1999년 『현대시조』 신인
상. 2007 『에세이 문학』 천료. 재미수필가협회, 미주시조협회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heesunchi>

하 세월 지난 뒤에도
젖어오는 감꽃 얼굴

3

동구 밖 고목 속에
숨겨둔 쪽지 편지

우물가 감나무 집
순이는 보았을까

궁금증 키를 높이는
봄비 오는 밤일레

4

저녁밥 짓는 연기
실실이 타오르고

휘파람 노래소리
강변을 서성이면

봄비로 되그려보는
고향 마을 수채화

미주문학 신인상 시조 부문 가작

그레이스 리

새

젖으며 먼 길로 간
새 한마리 또 왔다.

하늘은 언제든지
빗줄기로 적셔도

말없이
한길을 내어
비를 뚫고 다닌다.



서울 출생. 글마루 동인.

어머니

어무니 거친 시름
내 온몸 흔들어도

나 몰래 쏟아버린
슬픔은 반달이다.

깊은 속
속살 올리며
겨우 몸을 가난다.

입상 소감

제가 상을 받는 소감을 지면에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언제부터 일까?

발 빠르게 움직이며 신명 나게 살아가는 시간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 들고, 가슴 속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채워져 갔습니다. 그때 찾아온 세상의 좋은 글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 저도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옹하고, 때론 씨름하며 뒹굴다보니 상이라는 또 다른 기쁨이 저를 찾아 주었습니다. 더 잘하라는 상이니 부담도 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평

2007년에 신설된 미주문협 시조분과 원년은 참으로 막막하고 황당한 해였다.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시조 불모의 땅에 말뚝은 세웠으나 어떻게 이 튼드라 덮인 동토를 경작해 갈 것인지 아무런 방법도 요령도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뜨거운 마음 하나로 조심스레 조금씩 언 땅을 녹이며 가며 뿌린 꿈의 씨앗이 싹을 틔우더니 드디어 꽃을 피워내고야 말았다.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기만 하다. 다른 장르와는 달리 시조는 문학을 한다는 이들이 어쩔지 비켜만 가려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토방은 뜻있는 적지 않은 시조 지킴이들이 날로 불어나 다달이 한번씩 모이는 자리를 채워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며 시조의 진수를 캐내려 하는 열기가 뜨겁게 달구어져 가고 있다. 이는 불모지의 미주 시조계에 한 줄기 서기가 일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 응모한 그레이스 리 시인의 작품 단시조 7편을 접하고 우선 반갑고 기뻐다. 그중 「어머니」와 「새」 2편을 뽑았다. 시조 중에 가장 어려운 단시조로 도전한 시인의 소탈하고 꾸밈없는 마음 자세에 믿음이 갔다.

3장 6구 율과 격을 잘 갖추어냈고 작품마다의 주제의식을 명확히

집어내어 거기 걸맞는 은유로 전개해낸 숨씨가 돋보였다. 혼한 주제
이어서 더욱 자기 사유와 철학을 선명히 부각시켜야만 하는 어려움
을 잘 극복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해 시조의 깃발을 흔드는 역군이 되길 기대해 본
다.

심사위원 김호길, 최경희